

【자연】

다카쓰가와

청류 다카쓰가와 강은 국토교통성이 실시한 수질조사에서 2년 연속 일본 제일로 빛났습니다. 사람이 사는 마을에 흐르는 강으로선 매우 드문 일입니다. 다카쓰가와 강 유역에는 댐이 없습니다. 그 때문에 자유롭게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은어는, 「수도 좋고 맛있고, 맛도 좋고, 보기도 좋다」라는 브랜드 상품이 되어, 전국에서 많은 낚시꾼들이 모입니다. 매년 은어잡이 일본선수권 대회도 열립니다.



산리가하마 해안

국도 191 호선을 따라 동서 10km 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래해안가로, 특히 석양이 절경입니다.



수선화 마을

매년 12월부터 1월에 걸쳐 수선화가 주변일대에 흐드러지게 피며 그 향기가 수선화 마을에 퍼져나갑니다. 바다를 면한 사암(蛇岩)의 기이한 경관과 어우러진 이 장대한 풍경은 매우 인상적입니다.



히키미교 협곡

주고쿠산지 깊숙히 들어가면, 여기저기 청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. 그 곳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이윽고 모여서 급류가 되고 그것이 골짜기의 계곡미를 만들어 냅니다. 그 시원하고 맑은 풍경은 태고부터 전해지는 일본인의 원풍경입니다. 각기 다른 정취를 가진 세 곳의 계곡 중, 우라히키미교 협곡은 온천과 가깝고 산책로도 있어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.

